



전국 경찰 뉴스  
인터넷, 모바일로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 경찰연합신문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문의 : 120

제 163 호 |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 대표 : 1899-2026

THE KOREAPOLICENEWS

회장 : 송원기 / 발행·편집인 : 추교진 / 인쇄인 : 현재오

## ‘NO마스크’ 승차거부 첫 날... 기사들 “알아서 다 쓰던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이 시행된 26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른 날도 마스크는 잘 챙기시겠지 만, 오늘부터는 더 확실하게 챙겨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가 없으면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없거든요.”(MBC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26일 조용한 아침 버스 안. 라디오에선 경쾌한 오프닝 음악과 함께 가수 양희은씨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택시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거부할 수 있게 된 첫 날이다.

이날 서울 강북구 일대를 도는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봄비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 기사들도 일제히 마스크를 쓰고 승객들을 맞았다.

서울시청 인근으로 외근을 나왔다 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이날이라고 큰 차이는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간혹 한명 두명 씩 있는 미착용자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질 것 같아 좋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만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덴탈 마스크라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봤으면 한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 지하철 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어르신들 가운데 간혹 마스크를 안 끼고 계신 분이 있어 걱정스러

웠다”고 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버스에 탑승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착용했다. 종로구에서 마을버스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코로나19 감염도 걱정되지만 사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마스크를 끼게 된다”며 “거의 생활이 됐다”고 했다.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가 가능해진 택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출근시간대 약 15분간 택시를 탄 30여명 승객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택시 기사들은 혹시 모를 가능성은 차단했다는 점에서 만족해 하면서도 다만 승객들에게 어떻게 착용을 강제하겠느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12년 간 택시 운행을 했다는 김봉기(70)씨는 “그동안 마스크를 안 쓰고 타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며 “뒤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기침하고 재채기를 하면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승차거부를 하라는 데 어떻게 손님한테 강력하게 내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안 태우는 건 어려워도 그런 지침이 있으니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당분간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취하고,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이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하게 했다.

국토부 나기호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승차거부를 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대입서 허위서류 내면 입학취소... ‘조국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허위 서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학마다 달랐는데 입학 취소가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후속조치다.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명시했다. 대학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학칙에 정하는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만 규정한 뿐 입시 부정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로 인한 입학취소 규정을 담았을 뿐이다.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체에 맡긴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이 입시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교육부가 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입시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운조 기자 wj3737@gmail.com

## 행복한 도시의 시작 함께하는 경기도시공사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경기도시공사



# 과거사법·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찾아내 규명할 것”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 기본법’ 통과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피해수집 방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미 문을 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16일 피해자들의 신고 및 생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 개소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찬구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여야의 과거사정리 법 개정 합의로 그간 쌓인 한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직접 찾아내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 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생활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 지원 및 위령사업 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다.

지난 4월에는 선감학원대책 T/F팀을 별도 팀으로 신설해 ‘선감학원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번 과거사법 통과에도 힘을 보탰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의 별세를 주모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주모사업 및 치유 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접수(1899-7298)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한 후 센터(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 2층,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를 방문해 피해신청을 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다.

수원/김성곤 기자

##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34억원 증액 편성

민생안정, 도로개선, 교육환경 사업 중점둬  
계속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11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30억원, 도로·교통 분야 513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1289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9억원, 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 63억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81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0억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설치공사비 300억원을 편성했다.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940억원,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11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원, 아동 양육 긴급 돌봄비 204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125억원 등 모두 2003억원을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성남중앙초교 등 6개교 실내체육관 건립 18억원, 대장초·중통합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복정 제2국립공원어린이집 신축 14억원, 성남축구센터 조성공사 30억원, 성남시문화·의료시설 건립 70억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9억원을 배정했다.

했다.

운중동 934번지 등 5곳 공영주차장 설계·건립비 42억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2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940억원,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11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원, 아동 양육 긴급 돌봄비 204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125억원 등 모두 2003억원을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성남시

경북 문경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공기관, 교육·금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사 등 15개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대응 및 인구증가를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학이 모두 협력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정성우 기자

문경, 저출산대응민관학업무협약



## 부산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만나 부산 민심 전달해

“안전하지 않은 김해신공항 절대불가”  
송영길 의원 만나 관문공항 협조 요청

국부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검증이 막무가내로 진행되면서 김해신공항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서 종리실의 결정만 남았다”며, “수도권 중진의원이 송영길 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히며, 이번 강연회는 전국적 여론 확산의 본격적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과 14일,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차례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종리실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데 이어 부산시가 전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22일 부산시청에서 변성환 시장·권한대행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수도권 중진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5선)을 직접 만난 것이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시민과 소통·

## 안성시의회, ‘고령연료 소각장’ 건립 반대촉구 결의

허가 반대 결의문을 평택시장에게 전달  
편서풍으로 안성시에 직접 피해줄 수 있어

경기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은 최근 평택시장 집무실에서 도일동 고령연료(SRF) 소각장 허가 반대 결의문을 평택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안성시의회는 제187회 임시회에서 도일동 고령연료(SRF) 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을 상정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신원주 의장은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평택시 도일동에 건립 예정인

고령연료(SRF) 소각장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와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에 위치한 안성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 경계간 인접지역의 협오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보공유와 사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정장선 평택시장도 환경적인 측면을 비롯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결의문 전달을 마친 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유기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서는 최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lean Up HRDK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소속직원과 사업고객, 유관기관 등 여러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청렴문화 조성, 청렴활동 실행, 청렴문화 확산 단계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청렴문화 생태조성을 위해 사내 청렴송 방송, 청사 청렴계단 조성, 청렴식물 가꾸기, 청렴 알림톡 전송을 추진한다.

이어, 청렴활동 실행 단계에서는

청렴의 날 운영, 부패 위험사업 모니터링 강화, 청렴현장 탐방, 지사장과의 대화를 주진기로 했다.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사 홈페이지 내 청렴콘텐츠 게시, 홍보 기념품 제작 시 청렴문구 부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정 지사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의 청렴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청렴 캠페인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정승조 기자

가족이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며, 더 단단해진 조국사랑



6군단은 최근 부부의 날을 맞아 군단에서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부군인을 대상으로 격려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부부 모두가 군단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쉽지 않은 부부 군인 생활 속에서 도성실히 근무하면서 부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부의 날’은 2007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5월 21일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날 행사는 군단장 주관으로 부부군인 5쌍이 참여한 가운데 군단 영내에서 부부 포토 타임과 간담회, 기념품 증정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반일 휴가를 부여해 부부가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보병, 통신, 화생방 등 다양한 병과를 가진 부부군인 5쌍은 각기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28사단 화력지원반 소속 김민규 소령(진)과 군단 작전처에서 근무하는 박선희 대위 커플은 ‘11년도에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당시 12사단 화생방지원대 소대장이었던 아내는 훈련 목적으로 3포병여단 포병대에서 보호의를 빌리며, 작전장교인 현재의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다.

이후 남편이 근무하던 부대의 상급부대인 포병여단에 아내가 화생방지교로 근무하게 되면서, 좌충우돌 선후배(실제 7개월 선배) 관계로 친분을 쌓게 되었으며, 이후 13년도에 결혼하게 되었다.

현재는 슬하에 딸 3명과 함께 다복한 다둥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군단 지휘통신 참모처 소속인 유성길 중사와 군단 정보통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경 상사 커플은 ‘07년도에 1사단에서 통신병과 부사관 선·후배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남편 유성길 중사는 당시 장기

## 고양시, LH 개발이익 상생 방안 적극 나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집무실에서 제2부시장 주재 현안회의 개최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연이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시장 현장집무실에서 제2부시장 소관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2부시장 소관 부서 여러 현안사업의 추진현황보고와 함께, 3기 신도시·대곡역세권·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향후 고양시와 LH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상생 방안이 논의됐다.

현안회의를 주재한 이춘표 제2부시장은 “LH는 그간 고양시에서 삼송·원흥·지축·장항지구 등 5개 공공 택지지구와 최근 데든 도시개발사업 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기반·자족시설 확충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과 향후 3기 신도시·대곡역세권 개발 추진 시에는 반드시 LH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양시와 LH간 업무협약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오늘(20일)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LH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집무실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LH의 불합리한 개발방식 변경과 개발이익의 활용의 철저한 이행을 종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장과 제1·2부시장이 교대로 근무 중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 개방과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개발이익의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LH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LH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등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고양/김성태 기자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사실상 확정…과제도 산적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비대위로 압도적 결정"

김종인과 임기 문제 등 사전 논의, 김종인도 '수락'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논란됐던 임기 연장은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 후 브리핑에서 "김종인 박사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오전 내내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의 뜻이 모여 비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원외당 협위원장과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겠지만 (비대위) 방향이 잡힌 것을 때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당선자 워크숍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워크숍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대위 반대 의견은 '자강'이었다.

김종인 비대위 반대 입장은 조해진 당선인은 "상당히 많은 수가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했다"며 "김 내정자의 임기 문제 등은 사전에 논의했고 본인도 수락했다고 주 권한대행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3월 31일까지 임기 얘기도 있었지만 재·보궐과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나 의미가 없다"며 "표 차이는 찬반 나뉘어서 쌓이는데 높이를 보면 (차이를) 알겠더라"고 했다.

그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절망적이었다가 바뀌었다고 보고했다"며 "전국의 일정은 통합 등을 준비하면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워크숍을 마치는 대로 김 내정자를 찾아가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전환 결정이 내려진 28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 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 이에 따라 4·15 총선 참패 후 폭풍에 빠진 통합당이 김 내정자를 중심으로 전국선거 4연패라는 사상

초유 위기를 맞은 보수진영의 체질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21대 국회 83석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을 이끌어야 한다.

당장 김 내정자 당 소속 의원들을 압박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당 쇄신 작업에 나선다고 해도 당시 단일 대으로 뭉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들어선 새누리당(현 통합당) 박근혜 비대위는 25% 현역 물갈이 등을 추진하며 최근 10년 보수진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 받는다.

이는 친박계의 수장이자, 유력 대선주자였던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19대 총선 공천권까지 쥐었기 때문에 비대위를 통한 쇄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앞서 김희옥(2016년 총선 패배)·인명진(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김병준(2018년 지방선거 패배) 비대위 등 외부수혈을 한 경우 비대위원장의 좁은 당내 입지와 쇄신에 따른 기득권 상실 등 현역 의원들이 반발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종인 비대위 역시 앞서 실패한 비대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총선 참패로 인해 계파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기존 친박계 등으로 분류됐던 의원들의 입지 축소와 초선들의 대거 진입에 따라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 있다.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견제 심리를 어떻게 잡을지도 문제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차르(황제)'로 불릴 만큼 강한 리더십으로 유명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해 개혁성향으로 15명 이내의 비대위원을 구성,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경우 대선 주자들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

특히 '830세대'(1980년 대생·30대·2000년대 학번)가 통합당의 주요 혁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김용 당선인(70년생)을 비롯해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비대위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추동명 기자

## 이해찬, 윤미향 의혹에 '함구령'…'사실 확인 우선' 기조 유지

최고위서 "개별 의견 분출 말라  
검찰 수사로 회계 검증 불가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 "각자 개별적인 의견들을 분출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표께서 정당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잡아줘야 하는데, 정당이 자꾸 이런 문제와 관련해 일희일비 하듯 하나 하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

연) 이사장 출신으로 과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기부금 부정 운용', '안성 쉼터 고가매입', '경매 아파트 자금 출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연일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우선'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강릉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첫 공식 입장장을 밝힌 바 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보고 자료를 이 대표님이 보셨다"며 "관련해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관련 팩

트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행안부가 (시민사회단체의) 1차적 관리감독 기관"이라며 "공식 기관에서 1차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정의연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앞서 언급한 외부 감사 일부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허 대변인은 "일부 자료를 검찰이 가져간 상태"라며 "원래 계획했던 회계사협회를 통한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반기로 한 내용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추동명 기자

민주당, 8월29일 전당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4차 정기 전국 전당대회 날짜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노무현재단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진행한 유튜브 특별 방송 '노무현의 꿈이 이뤄지는 시대에 출연해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라 전당원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온라인 전당대회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부위원회를 소집해 전준위 설치 및 구성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동명 기자

'규제'에 묶인 서울 집값 8주째 ↓ 남양주 0.1% 상승



추격매수 없는 강남 '관망세' 짙어  
금리인하發 유동성 확대 vs 정부 규제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약세 (-0.01%)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고 5주 연속 떨어졌던 일반아파트는 보합 (0.00%)을 기록했다.

과세 기준점인 6월을 코앞에 두고 방향성 탐색을 위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총선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해 나오면서 추격 매수는 제한된 분위기다.

◇재건축 하락세 소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산 보합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다. 재건축이 0.06% 떨어져 전주 (-0.05%)보다 낙폭이 조금 커졌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을 기록했다. 이밖에 신도시가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저평가 지역에서의 거래가 이어지면서 0.05% 상승 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8%) △강남(-0.06%) △광진(-0.03%) △강동(-0.01%) 순으로 내렸다. 반면 △구로(0.08%) △중구(0.07%) △중랑(0.04%) △서대문(0.04%)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곳들은 올랐다. 이번 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0.00%)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도시는 △일산(0.04%) △분당(0.03%) △판교(0.03%) △산본(0.02%) △광교(0.02%) △중동(0.01%)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성남(0.10%) △왕(0.09%) △수원(0.06%) △안산(0.06%) △용인(0.06%) △군포(0.05%) 순으로 올랐다. 지역 내 입주물량이 많이 늘어난 곳은 0.47% 떨어졌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부 급매물이 거래된 이후 하락폭은 다소 주춤해지고 있으며 각종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달리 신도시나 경기·인천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저가 아파트가 많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체우 기자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은

##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안전 및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제, 때와 장소에 맞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경남도, 중앙아시아 5개국, 함양산삼엑스포 찾는다



## 한·중앙아친선협, 입장권 구매 약정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보탬 될 수 있을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 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한·중앙아친선협회(회장 이 육련)와 예매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중앙아친선협회는 투르크 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국인 관람객의 엑스포 입장권 2,000매 구매를 약정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약정식에는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 이육련 한·중앙아친선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중앙아친선협회 이육련 회장은 “한·중앙아친선협회는 투르크 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5개의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어 함양산삼엑스포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구매 약정식을 계기로 더 많은 중앙아시아 5개국 국민과 한국 거주 교민들이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돋겠다.”고 하

였다.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한·중앙아친선협회의 관람객 유치 협력과 입장권 구매는 엑스포 성공개최에 큰 힘 될 것”이라며, “중앙아시아 5개국을 비롯해 엑스포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개발하는 등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내실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정부공인 국제행사로서 개최되는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입장권 예매는 티켓링크, nh 농협, 엑스포조직위에서 가능하며, 1차 예매 기간인 6월 30일까지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성인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예매권 및 입장권 소지자는 엑스포 기간 중(일부는 예매시부터 엑스포 종료시까지) 경남도 내 16개 시군 숙박 및 유료관광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할인대상 시설과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화순군, 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자연속애순미’ 화순군 쌀브랜드 가치높여 시상식 도청 7월 정례조회시 진행 예정

전남 화순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화순의 ‘자연속애순미’가 선정(장려상)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자연속애순미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전남도청 7월 정례조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은 밤맛, 흰입 률, 단일품종 증가율, 친환경 쌀 재배, 기계 품질, 외관 품위에 대해 전문기관별 평가와 현장평가 등 1차, 2 차, 최종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도곡농협라이스센터의 자연속애 순미는 호농 품종으로 141농가가 484ha 규모로 계약 재배한다. 856t 을 매입하고 브랜드 쌀 연간 매출액은 20억 원이다.

포장 단위는 10kg으로 가마당 3 만4000원이며 택배비는 별도다. 구매 문의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061-372-4010)에 하면 된다.

## 화성시, 대대적으로 택시 방역 소독 강화

관내 법인택시업체 3개소 현장점검 개인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방역 실시

경기 화성시가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다.

시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에 돌입했다.

우선 최근 관내 택시업체인 동성운수, 금성공사, 운수협동조합 3개소에 자체 소독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매일 운행교대 시마다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 시작 전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관할보건소로 연락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21일 화성시개인택시조합(조합장 장덕희)과 함께 병점역, 동탄역, 주요 충전소 등 택시 승강장을 중심으로 관내 개인택시 소독을 실시했다.



택시 운전자들에게는 승객 승하차시 차량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하고 차량 소독제 및 손소독제 비치, 근무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택시 차고지와 승하차, 차량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용범 기자

## ‘보고 싶었다, 얘들아!’ 장흥고, 고3 첫 등교 개학

전 교직원 따뜻한 맞이하는 행사 실시  
중앙 현관에서 교직원들이 발열 체크

전남 장흥고는 지난 20일 고3 등교 개학을 준비하며 전 교직원이 학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침 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첫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고3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장, 교감 등 교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5월 20일 아침 교문 앞에서는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과장, 교장, 학생부 선생님들이 반가운 미소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중앙 현관에서는 교감, 교직원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교실에서는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초콜릿 등 간식 거리를 나누어주며 첫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인사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등교하던 3학년 김○○ 학생은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 주시고 간식까지챙겨주셔서 감사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열심



히 학교생활을 하여 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고 김광수 교장은 “학생들의 등굣길에 아침 맞이를 자주 하는데, 오늘은 첫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특별하게 여겨진다.

오늘 아침 맞이 행사는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고생했을 학생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소소한 간식거리와 함께 선생님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교직원들의 의견으로 마련되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앞으로도 좋은 취지의 아침 맞이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김종현 기자

## 광명시 전체 학교 열화상카메라 장착

기준 미달로 미자급 학교 12곳 지원  
비접촉식 체온계 수시 활용해 달라

경기 광명시는 기준 학생 수가 모자라 체열탐지 열화상카메라를 지급 받지 못한 초·중·고교 12곳에 카메라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광명지역 전체 초·중·고교 48곳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모두 갖추게 됐다.

광명시가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는 학교는 광명남초와 연서초, 도덕초 등 초등학교 9곳과 안서중, 빛가온중, 경기항공고 등 중·고교 3곳이다.

이 학교들은 광명교육지원청이 정한 학생 수 기준 478명에 못 미쳐 교육청으로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지급 받지 못한 곳이다.

열화상카메라는 한 대당 가격이 700만 원 수준으로, 광명시는 전체 예산 8400만 원을 확보하는 대로 12 개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발열 체크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뿐만 아니라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광명시는 이밖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당국과 유치원, 학원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 마스크만 6만 개가 넘는다.

또 4월부터는 긴급 돌봄학교 학습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도 공동 구매했다.

광명시는 등교 수업에 앞서 18일에는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학교 안전 개학 TF’도 꾸렸다.

TF는 정기 회의를 통해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등·하교와 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교사들이 힘들더라도 비접촉식 체온계로 학생들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자”고 말했다.

광명/정채우 기자

# 깨끗한 숨 따뜻한 삶 행복한 삶

깨끗한 숨을 쉴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에너지  
사람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 개별난방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9.2%감소
- 개별난방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감소
- 황산화물질 배출 저감 청정기체 연료 전환
- 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 귀농 1번지 경북, 경상북도로 오이소~



도 및 13개 시군, 귀농귀촌 최적지 홍보 및 매력 발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0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경상북도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최적지로서 경북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는 청년층과

인생 2막을 꿈꾸는 장년층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청년 창업관, 채용 컨설팅, 지역별 귀농 지원정책 홍보관, 특산물 판매장 등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진행됐다.

경북도와 13개 시군에서는 귀농

인 및 담당 공무원 80여명이 온·오프라인 홍보관 운영을 통해 귀농 희망자들에게 귀농 및 청년창농 지원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고소득 작물 소개 등 귀농 최적지 경북만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귀농 희망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코너를 운영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편 2018년 경북 귀농가구는 2,176가구로 전국 11,962가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연속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금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농어촌진흥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귀농가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의 매력은 다양한 고소득 작물과 영농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농가가 가장 많으며 단계별 정책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운영 등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를 기반으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영주, 산악레포츠단지 조성 밀그림



경북 영주시는 최근 시청 강당에서 '소백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 태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비롯한 관련 부서장, 자문위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소규모, 힐링, 청정, 스마트' 등을 키워드로 나타나는 관광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초이다.

특히 보고회에 참석자들은 부서사, 소수서원 등 관립 위주의 관광지를 보완할 체험형·체류형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영주시는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산림레포츠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이후 증가할 관광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조 기자

김포시, 위기상황 대응 위한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민 안전 위해  
본청 민원실 경찰서 연계 비상벨 설치

경기 김포시는 최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본청 민원실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 112상황실로 연결돼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민원실 근무 직원을 보호하고 방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김포경찰서와 협업해 민원실과 112상황실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설치한 경찰 연계 비상벨은 신속한 상황 알림으로 위기상황에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돼 직원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



고의 확대 방지와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실 직원은 물론 방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 비상벨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설치를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차덕문 기자

안산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대상자 자수기간 운영

보호관찰 위반 지명 수배된 대상자  
자수기간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치유 법령부 노력 동참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 수배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 자수기간은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에는 특수절차 등으로 소년보호관찰을 받다가 집에서 기출하여 보호관찰을 회피하며 지명수배 중이던 K군이 실제로 자수하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규정대로 조사 후 석방조치를 하였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김상록 소장은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일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산/김대성 기자

경주시,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 2년 연속 선정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검토 거쳐 최종 선정  
공공임대주택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 입주

경북 경주시는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 지자체는 경주시를 포함 전국 6개 지자체로 지난 2월 규모, 재원방안, 복지시설 운영·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서를 제출 받아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4년간 국비 132억 원 등 총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복지시설이 함께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건립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으로 설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를 하게 되며,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미실,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등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노노케어를 통한 2차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노인 고독사 방지 위한 사업이다.

경주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시는 부지제공(50년간 무상임대), 복지시설의 기자재 구입, 운영을 담당하게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주택 및 복지시설의 건설비용과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령자복지주택은 민선7기 거점별 실버밸 건립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노년층을 이제는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사업은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문경시, 횡단보도서 보행 3원칙 지켜주세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는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스티커를 제작해 모전초등학교, 점촌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보도 경계석)에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행 3원칙 스티커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방어보행 3원칙 스티커 설치 사업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가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행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약자들에게 보행원칙을 흥보하고 실천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회장은 "이번 보행 3원칙 스티커 설치 사업과 같이 선진교통문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문경시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Perfect & Pride**  
대한민국의 별을  
키우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전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KPS 패러데이 스쿨’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 패러데이 스쿨 : 한전KPS의 사내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현장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 상생 프로그램 ]

한전KPS주식회사

# 이재명, 나눔의집 특별점검 ‘현신은 존중책임은 분명히’

## 후원금 부적정 사용 및 법률 미준수 사례 발견

### 법인운영·후원금·법인회계, 증축공사 과정 문제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현신은 현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현신까지 부정되거나 편웨이로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범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남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

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원/김성곤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공약실천” 최우수 의원 선정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수상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제7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공약실천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근 표창을 받았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공헌해 온 우수의원 17명을 10개 분야별로 선발했으며, 이날 시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의 행사 없이 전달식으로 대체했다.

이영아 의원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쳐왔으며, 공동체의 안전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마을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부실

운영과 시청사 청소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매서운 비판으로 시 행정에 긴장을 불어넣은 한편, 제도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공약 실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젊은 열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치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땀 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이광희 기자

##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 마련해

평화도시조성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추진  
추경예산안이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파주시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파주시는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평화협력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5년간 연차별 추진방안을 모색해 남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비전을



구축하고 파주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파주형 평화도시조성 기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북미, 남북관계의 흐름과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울 것”이라며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평화도시 네트

워크 및 민·관 협력 등 관련 세부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3월 19일 기초지자체 최초로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평화 도시 실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GTX C노선 평택 연장 급물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의 평택까지 연장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평택·화성·오산 3개 시가 다시 모였다.

평택시는 지난 19일 서울 국회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광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오산), 권칠승(화성병), 흥기원(평택갑) 당선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현미 장관에게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산업단지 등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교통 수요에 따라 GTX-C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사업 변경은 어렵다”면서 “적극적인 만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GTX-C의 평택 연장으로 광역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GTX-C 노선을 통해 평택·화성·오산 3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GTX-C 노선은 일정한 시기마다 평택·화성·오산 3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GTX-C 노선은 일정한 시기마다 평택·화성·오산 3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GTX-C 노선은 일정한 시기마다 평택·화성·오산 3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평택/유기영 기자

## 광명시, 35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명시는 현 자원회수시설(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인근 부지에 3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건립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1999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 되어 소각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을 소화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앞 두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신규 건립이 필요하다.

시는 본 용역을 통해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경기부과 사전 예산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정채우 기자

## 다문화포용도시 안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포용도시 1번지  
차별 없는 복지와 선도 정책 만들겠다

전국 최대의 외국인 거주지역인 ‘글로벌 도시’ 안산시가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포용도시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안산시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다문화포용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2006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를 발굴,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는 전 국민으로 한층 더 발돋움 할 전망이다.

안산/김대성 기자

## 도시개발사업 반려 지역에 고층 아파트 안돼요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자 주의 강조  
용도변경 불가지역 투자로 피해 발생

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변경 불가지역에 대한 투자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 전호리 15번지 일원(전호지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난 2006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 고시된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018년 6월 18일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 고시 제2018-140호)돼 관리 중인 지역이다.

해당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이며 기준 시가지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

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도연접하지 않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민간제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김포시는 2019년 10월 22일 (가칭) 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2019년 10월 29일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 처리한 바 있다.

윤철현 도시계획과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계획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 주민(지역주택조합)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포/차덕문 기자

##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올 연말 준공한다

일동·고잔동에 모두 19가구 조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 제시할 것

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고잔동에 지어지는 케어안심주택에는 9가구가, 일동에는 10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모든 건물에는 건강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입주 대상 어르신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선정할 방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안산시 한의사회·안산시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길대성 기자

## 여주 2020년 전국지자체평가 인구 50만 미만 부문 1위

여주시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59개시 부문 종합 1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 결과로 92.99점을 총점으로 받았으며 2018년 38위, 2019년 19위로 10위권 밖에서 단숨에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추진한 평가에서 교육과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이 포함된 행정서비스 분야 59.375%, 재정역량분야 35.62%,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분야 5%였으며 행정서비스 분야가 다른 지

여주/유기영 기자

# 화성시, '레벨4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협약 체결

국토부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 정책 펼칠 것"

화성시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율주행' 기술의 메카로 도약한다.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실증 대상지로 화성시를 최종 선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관하며 국내 자율자동차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26개소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21년 말까지 국비 273억원, 민간자본 91억원, 총 364억원이 투입되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조성된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와 새 솔동 수노를 중앙로 일원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차량 제작, 교통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실증하려는 기술은 운전자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로써 V2X 통신(차량과 사물간 통신)으로 주변 차량과 도로 인프라 등을 연동해 안전성이 확보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 실재 도로를 통한 기술검증으로 해당 분야의 획기적인 성장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연구, 실험, 실증, 생산 등 미래차 산업의 전주기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면서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성시와 함께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리 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무상교통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을 접목한 융복합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주행 학습 알고리즘 개발,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입, 공유 교통서비스 창출까지 친환경 협단 교통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화성/김용범 기자

## 고양시, '군 낙석 철거'로 내유동·지영동 주민 숙원 해결

군당구자속적협의60사단협의각서체결  
하반기철거완료예정'군자연에는영향없어'

고양시는 덕양구 내유동 및 일산동구 지영동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60사단 관할 군사시설인 낙석 2개소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군 당국과 군사시설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지난 14일 60사단과 합의 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시는 지난 해 '고양시 군사시설에 대한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윤용석 의원)'이 통과된 이후 군사시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민·관·군협의체 관련 TF팀을 구성, 낙석 철거를 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낙석은 전시에 적군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도로 상부에 설치된 군사시설물로 특히 대전차 방어에 중요역할을 하지만,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차량통행의 복목 현상에 따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수십 년 간 지속됐다.

군사시설물(낙석) 철거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군과 협의해 금년 하반기 안에는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은 군과 협의를 통해 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군 작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군 낙석 철거를 계기로 고양시가 낡은 군사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평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군사시설 철거에 적극 협조해준 군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재준 시장 민선7기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해부터 정성급의 군관협력담당관을 채용해 고양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127.37㎢ 중 60사단 관할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 및 행정위탁(18.6㎢), 2019년에는 30사단 관할구역 해제(4.3㎢) 및 행정위탁(4.5㎢)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고양/김성태 기자

## 신규농업인 교육수료자 70%, "귀농·귀촌 생활만족"

귀농·귀촌여부, 만족도 등 조사

귀농·귀촌 만족도 : 만족 70%,

지난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중 귀농·귀촌 한 신규농업인의 70%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작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174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 ▲정착지역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만족도 및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수료자 중 37명(21.3%)가 귀농·귀촌을 했으며, 이 중 23명(62.2%)은 경기도로 귀농·귀촌을 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6명, 안성 4명, 이천·평택 3명, 남양주·여주 2명, 김포·양평·용인 각 1명 순이었다.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14명(37.8%)으로, 이 중 10명은 연고지 또는 지인의 거주로 도외 지역을 선택했다.

귀농·귀촌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만족 70%, 보통 22%, 불만족

8%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의 어려운 점으로는 영농기술과 경험의 부족 59%, 경제적 이유 27%, 지역주민의 갈등 11%,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46%는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졌고, 평균적으로는 귀농·귀촌에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했을 때 주 재배작물은 원예작물 72.4%, 식량작물 20.6%, 특용작물 3%, 축산 3%, 기타 1% 순이었다. 원예작물 중에는 채소 47.6%, 과수 38.1%, 화훼 9.5%로 채소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농기원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해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도울 수 있도록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심화교육과 현장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철 경기도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신규 농업인들에게 영농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과 영농경험을 제공한다면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승곤 기자

## 연천군 재난선불카드, 10억 초과 매장 사용 가능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선불카드 지금  
시행업소 제외한 10억원 초과 매장 사용 가능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18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접수 및 지급하고 있다.

지금 대상은 202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천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유형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관내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조건이 상이하여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연천군에서는 해당 매장



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알림 홍보문'을 관내 매장에 배포하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년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라며, 5월 31일까지는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고 말했다.

연천/김승곤 기자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일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

사업수행능력 입지수요 검증 완료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이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 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이 이하 공

고양/김성태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천년왕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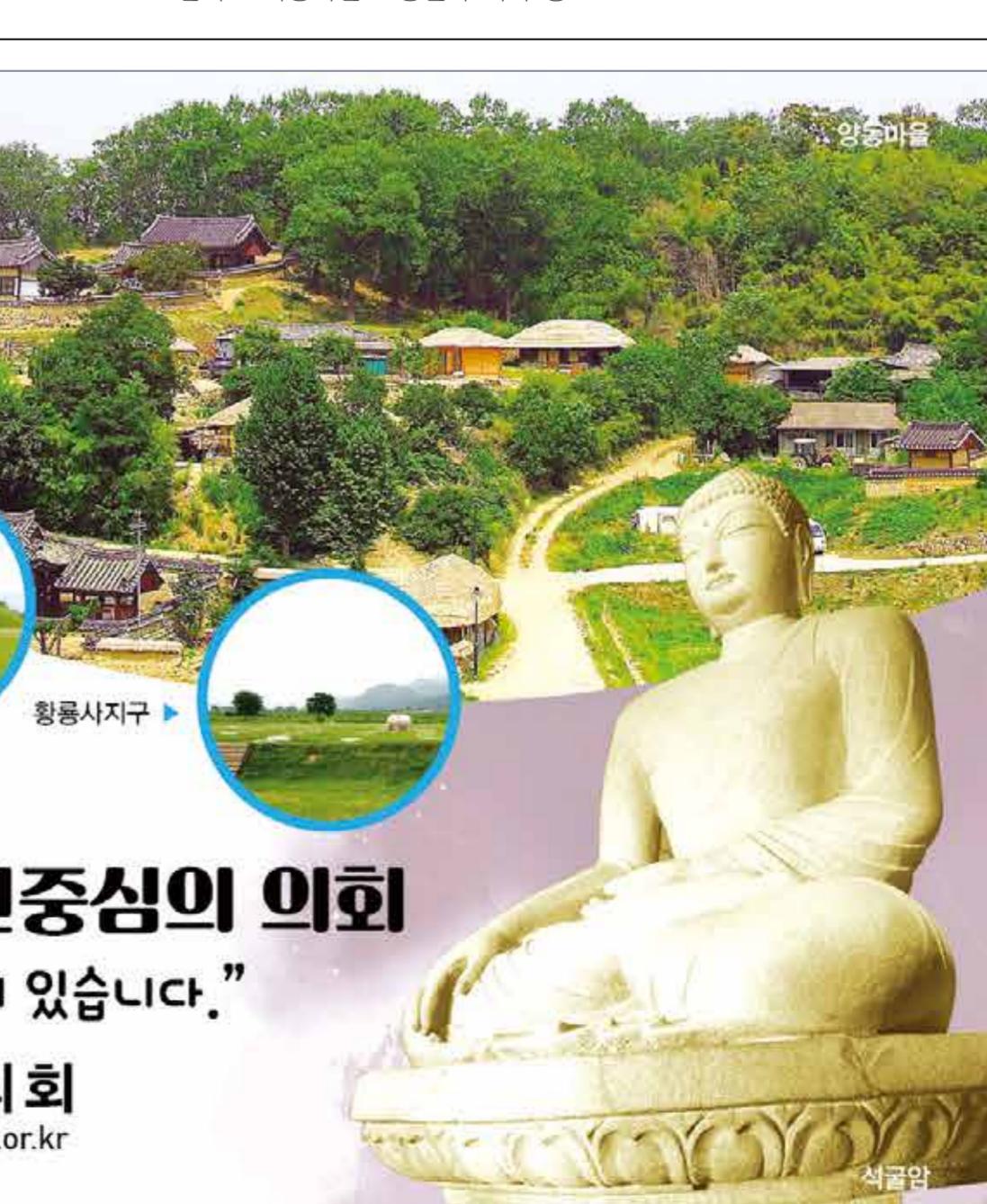


산성지구

소통하는 의정, 시민 중심의 의회

"경주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http://gicouncil.or.kr>



# 이제 다시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뜻을 올린다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다짐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최근 경북 도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를 비롯한 지원기관, 당사자조직,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구경북 경제적·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추구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대

구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올해 경북에서 개최예정인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업종별 장단기 사업화,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교류 활성화,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사

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대구경북 사회적 경제 대회를 비롯하여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사회적 경제 국제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민·민·민·관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프로그램 공동개발,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수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올해 증대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했다.

지난 해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사업 44개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사

회적경제분야가 대구경북 상생협력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대구경북은 오랜기간 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한뿌리이며, 지난 2018년 8월 「대구경북 한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대구경북 사회적 경제가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가치와 이념으로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고, 경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천시립역사박물관건립 중간보고회 개최했다

###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기본개념구상 건축 기본계획 등 설명

영천시는 올해 하반기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위한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기문 영천시장, 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용역을 수행 중인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우성호)에서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기본개념구상과 건축 기본계획 등을 설명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영천시가 고대부터 현재까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갖게 된 의미와 의의에 주목하여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을 '길'로 제시했으며, '길'이라는 기본주제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영천지역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법률·정책·기술적 적정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팀에서 영천시에 시민 참여형 박물관건립과 시립박물관건립 TF팀 신설을 제안



했다.

영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영천시립역사박물관은 화릉동 934번지 일원에 부지 1만8811㎡, 건축면적 30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체부의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를 통과하면 사업비 200억 원 중 국비 80억 원(40%)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조한웅 문화예술과장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자료 수집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영천/한반식 기자

### 청정도시영주'안심하고방문하세요'



영주시에서는 최근 영주역, 터미널 및 주요 관광지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린&안심 영주」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청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클린&안심 영주」 캠페인은 영주역을 비롯한 관내 주요 시설과 부서사,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마을 등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활동과 함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홍보전단 배부와 캠페인 활동을 통한 「청정 영주」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실시했다.

이외에도 영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MOU체결 및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정국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경주시, 산내면 동창천 청룡공원이 달라진다

### 청룡공원 일대에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 여름철 청룡폭포 야생화의 아름다운 만남



경주시 산내면은 지난 3월부터 이번달까지 '아름다운 산내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창천 청룡공원 일대에 야생화 꽃단지 1,000㎡를 조성했다.

동창천 일원은 인공폭포인 청룡폭포가 있고 여름철 물놀이와 캠핑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더 폐쇄한 환경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했다.

공원주변에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미측백을 중심으로 할미꽃, 돌단풍, 금낭화, 비비추, 꽃잔디, 매발톱, 사계장미, 사계페랭이 등 다양한 야생화를 심었다. 사계절 푸르름과 예쁜 꽃들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산내면의 아름답고 특색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야생화를 심었던

산내면 버스정류장 등 5곳에는 산내면 주민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부녀회에서 이른 봄부터 잡초를 제거하는 등 꽃밭 가꾸기 작업에 참여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이상근 산내면장은 “아름다운 산내면 만들기에 동참해준 산내면 주민들과 자생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내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안전한 「클린&안심 도청신도시」 만들자!



### 이철우 지사, 안동시 기관 단체장 참석 직원들과 도청신도시 방역소독, 청소

경북도는 최근 도청신도시 일대에서 도청 직원들이 안동시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활동과 거리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역활동과 대청소는 코로나19로부터 청결하고 깨끗한 경북도 이미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청신도시를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7시 30분부터 이철우 도지사, 안동시장, 지역도의원, 도청신도시 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안동시 기관·단체장들과 250여 명의

도청직원들은 도청신도시의 상가지구를 중심으로 상가건물의 출입문과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공동이용구간에 대

한 방역소독을 하고, 공원, 주차장,

공터 등 도청신도시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

손에 분무기 소독제를 들고 방역소독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경북 이미지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절저를 기하고, 특히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을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 새마을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매주 금요일마다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청 직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도청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책상, 케비넷 등 사무실 대청소를 실시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문경시·범시민 경제살리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힘찬 첫걸음 추진상황 점검·민관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문경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연합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문경시 BC(Beyond Corona-19) 범시민 경제살리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문경의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이후 시정방향에 대해 코로나19방역팀(보건소장), 민생안정팀(행정복지국장), 경제활성화팀(경제산업국장)이 텔별로 보고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1일차 보고회에서는 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위원회들이 참석해 문경시 BC 경제살리기 범시민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의료분야에 전경홍 등

의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실시했다.

2일차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3일차에는 상인회, 농공단지협의회, 전문건설(토목), 건축사회 위원들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코로나 대응 현황 및 앞으로

의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실시했다.

현재 문경시의 확진자는 경북 23개 시·군中最 낮은 수준으로 전

##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 확산 회의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온라인 화상강의로 진행해

문경시 설치, 문경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경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의)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부모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개별면담 기법교육'을 지난 19일 온라인 화상강의로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의 일환으로 진행된 화상강의는 일방향으로 이뤄지는 동영상 강의와는 다르게 강의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소통하며 이뤄

진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과 차이점을 갖는다.

온라인 화상강의를 들은 보육교사는 “첫 화상강의라 어색했지만 화상 강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줄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현의 센터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내 다양한 대책으로 보육교직원들의 교육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으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경/정승우 기자

## 영주시, '500년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조성사업 설명회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봉현면 오현리 일원에 부지매입비 포함 총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대표 축제인 풍기인삼축제의 축제장과 부대행사장 및 지역 최초 국제행사인 '2021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하며, 평상시에는 지역민들의 쉼터와 다양한 놀이체험휴양 등을 결할 수 있는 문화팝업 공간으로 조성 활용할 계획이다.

50년 가을의 재배지이자 고려인삼 시배지인 영주 지역의 전통과 역사 알릴 수 있는 '500년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조성 사업은 기본 인프라와 시설 부족으로 인삼의 고장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이 라는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 해결을

영주/정승우 기자

## 경주시,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공모 2년 연속 선정

### 고령자 복지주택 통한 주거안정 '고독사 해소, 199억 원 투입해'

경주시는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지자체는 경주시를 포함 전국 6개 지자체로 지난 2월 규모, 재원 방안, 복지시설 운영·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서를 제출 받아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4년간 국비 132억 원 등 총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복지시설의 건설비용과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령자복지주택은 민선7기 거점별 실버밸 건립 공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노년층을 이제는 우리가 보살피어야 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사업은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김경수 지사 “등교수업 시작, 학교 방역에 최선”

간헐적 확진자 발생 불가피, 확산 차단 총력” 기울여

## ‘경남형 뉴딜사업 발굴’에 대한 간부회의 개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고3 등교 수업 시작과 관련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신관 종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 현장의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도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직전, 이달 초 서울 신촌 소재 클럽을 방문한 경남121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 지사는 “코로나 대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간헐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감염병이 전파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심리적인 방역도 함께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전했다.

현재 도와 시군을 포함해 총 21곳

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심리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전날(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전사서명법」 등 법안 통과 의미와 효과를 언급하며 도민들께 도움 되는 부분은 필요 한 시점에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남형 뉴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 14일에 이어 개최된 두 번째로 진행된 회의에서 각 실·국·본부

는 경남형 뉴딜사업의 방향으로 설정된 ‘디지털·그린·사회적·한반도신 경제 뉴딜’ 분야별로 발굴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연계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주제인 ‘경남형 뉴딜’과 관련해 김 지사는 “어제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도 한국형 뉴딜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셨고, 새판을 짜 나가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 정해



졌다”며 “정부의 방향과 함께 경남이 어떻게 보조를 맞추면서 경남형, 경남판 뉴딜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각 실·국·본부의 보고와 토론 진행 뒤 이어진 마무리발언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 중 공동 추진이나 협업이 가능한 사업들은 바로 정리해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과 “새로 발굴된 사업들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중앙 부처와 협의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날 발굴한 사업을 토대로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경남형 뉴딜 사업을 확정해 향후 국비확보, 사회적 안전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디지털회의를 계기로 향후 간부회의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에 스마트기기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종이 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업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함양산삼엑스포 개최 영호남 7개 시·군 뭉쳤다!



산삼엑스포 조직위·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업무 협약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리산을 연접하고 있는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영호남 7개 시·군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함양군청 대회 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과 해당 시·군 부단체장들이 입장권 예매는 티켓 링크, nh농협, 엑스포 조직위에서 가능하며, 1차 예매 기간인 6월 30 일까지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성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 며, 예매권 및 입장권 소지자는 엑스포 기간 중(일부는 예매시부터 엑스포 종료시까지) 경남도 내 16 개 시군 숙박 및 유료관광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할인대상 시설과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거제시와 조선소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파트너”

고용안정, 물량지역 배분, 4대 보험체납 논의  
거제시 지역경제 기반은 여전히 조선산업

어 내년 일감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수주회복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시에서 많 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소장은 “대 우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 물량은 6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나마 HMM호 덕분에 대우와 삼성 모두 급한 불을 끈 상황”이 라고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조선업 장기 불황에 더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고 양대 조선소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량 하 나라도 더 지역 협력사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물량의 지역 내 배분과 조선현장의 고용 안정, 4대 보험체납 방지에 대한 원정 차원에서의 관리 방안을 비롯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와의 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한 논의도 이어갔다.

변광용 시장은 “우리시는 조선업



이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거제 경제의 원동력은 바로 조선소”며 “거제시와 조선소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파트너로 언제든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거제

시 수질환경과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김해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에 따라 사고 접수 시부터 상황판단·보고 상황전파, 방제인력 동원,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조치, 훈련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불암동 빗물배수펌프장 상류 하우스 농가에서 난방유 약 1000ℓ가 유출된 사고를 가상 설정해 방제보트, 오일펜스, 오일붐, 흡착물, 유화제 고압 살포기 등의 방제장비를 총 동원, 실제상황과 같이 이뤄졌다.

황희철 수질환경과장은 “현장 중심의 방제훈련으로 초기 대응체계 확립과 방제요령 숙달을 통한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영도 기자.

김해/김영도 기자.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건설’ 청신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영도구 봉래동 봉래교차로와 동삼동 해경교차로(동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봉래교차로~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도구의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봉래동 봉래교차로에서 영도구 종양의 봉래산을 터널(연장 2.78km)로 통과하여 반대측 동삼동 해경교차로(동삼혁신도시) 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3.1km이며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 총사업비는 2,079억 원(국비 995억·시비 1,084억)에 달한다.

봉래교차로~동삼혁신도시 간 도로 건설은 지난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 8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같은 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두 차례 접점 회의와 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 통과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태종로 등 기존 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태종대유원지 및 국립해양박물관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외래 방문객 유입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주민의 출퇴근 등 통행 불편 완화는 물론 관광명소인 태종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 고품격 자연주의 안성마춤



한국일보 – 안성마춤 쌀

자연을 묻은 한우 – 안성마춤 한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 안성마춤 배

## 2019 퍼스트 브랜드 대상 12년 연속수상 (대한민국 퍼스트클래스)

2011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 2010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대상  
2009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상(대통령상) /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2008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07 대한민국 우수 특산물 대상

City of Masters  
안성마춤 브랜드  
안성마춤농협

동양의 자연화산비 – 안성마춤 인삼



# 여수시, 전국 지자체 평가 중소도시 부문 '종합 2위'

**대규모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분야 높이 평가  
지난해 9위 → 올해 2위로 종합 순위 껑충 뛰어**

여수시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중 종합 2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95년 이래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여수시는 재정건전성과 행정서비스 분야의 지역경제, 보건복지 등 부문별 점수가 상위에 오르며 지난해 보다 종합순위가 무려 7단계 상승해, 최종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역경제 부문은 2025년까지 약 9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단 신증설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여수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시책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39위에서 4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그동안 여수시는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산단 입주업체의 기반시설 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 밖에도 삼동지구 첨단 R&D 혁신산업단지 조성, 세계한상대회 개

최, 경도 진입로로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청년몰 육성, 청년인턴제도 확대,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과 경제기업 100개 발굴 등 여수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행정 전 영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전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행복공동체 여수로 만들 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자체 평가는 언론·학회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렸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계청, 행정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전국의 지자체를 특별·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자치구, 군 단위 농어촌 등 6개 그룹으로 나누고, 보건 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의 5개 분야 행정서비스와 재정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여수/김상면 기자

## '대숲맑은 담양쌀' 전남10대 고품질 브랜드쌀 '대상' 수상

10년 연속 상위권 수상의 영예  
대숲 맑은 브랜드 가치 향상!

담양군 대표 브랜드인 금성농협의 '대숲맑은 담양 쌀'이 올해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개의 전문기

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전남농업기술원, 전라남도가 함께 평가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구입한 시료를 대상으로 식미, 품질, 품종 허용률, 중금속 오염도, 잔류 농약검사 및 가공, 저장에 대한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했다.

담양군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위생농업과 품질 고급화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농업의 기본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위생농업과 고품질화를 더욱 더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학 기자

## 구례군, 배출가스 저감사업 2차추진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운행자 배출 가스 저감 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행자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8백만원으로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 061-780-215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운행자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겠다"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강운철 기자

## 노동력 부족 심화...화순군, 농촌 일손돕기 나서

화순군(군수 구중곤)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농촌 일손 돋기 기간'을 정하고 농촌 일손 돋기에 나섰다.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인력의 지역 간 이동 제한과 외국인력 수급 부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농촌 일손 돋기 기간'으로 정하고 영농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섰다.

20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직원 32명은 화순읍 수만리에 있는 복숭아 농장을 찾아 봉지 씨우기 작업을 도왔다. 과수 재배에 봉지 씨우기 작업은 병해충 예방과 과실 착색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복숭아 재배 농가는 "80세의 나이에 복숭아를 9000㎡ 재배하고 있으나 최근 농번기와 코로나 상황이 겹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봉지 씨우기를 포기



할까 고민했는데 화순군에서 일손을 덜어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4월 과수 저온 피해에 이어 5월에는 일손 부족으로 과수 농가의 시

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의 애로 사항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전남 최대의 복숭아 주산지로 5월부터 6월 상旬까지 복숭아 적과와 봉지 씨우기 작업이 한창이다.

화순/이윤상 기자

## 순천시, 8천개 다중이용시설 상생 지원금 지원

숙박업, 체육시설, 요식업, PC방, 노래연습장 등 약 8천여개 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시장 허석)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업소)에 전액 시비로 5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고 21일(목) 밝혔다.

오는 25일(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상생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위기와 생계절벽에 다가서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업소) 사업주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을 목표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21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업소) 대표자로서, '2020년 3월 22일까지 순천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업소)' 또는 '2020년 2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한 시설(업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학원,

한편, 이에 앞서 순천시는 택시·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4,600여 명에게 50만원씩 총 21억여원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 화순군, 관내 택시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긴급 지원

택시 종사자 137명 대상으로

화순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

화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를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도비와 군비 6850만 원을 투입해 지역 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협동은행 화순군지부 등 5개 농협 지점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역의 일반택시 회사 8개 소의 종사자, 개인택시 종사자 등 137명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

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운수 종사자로 운수 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30만 원)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택시 운수 종사자 긴급 지원이 승객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윤상 기자

## 장흥군 CCTV관제요원 점유이탈횡령범 검거

장흥경찰서장, 관제요원에 표창장 수여  
범인 직감 경찰서 신고 검거하는 성과

장흥군 CCTV통합센터 관제요원 김 모 씨가 점유이탈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범인을 퇴근길에,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 범인임을 직감하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인규 장흥경찰서장은 밤빠른 대처로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요원에게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13일에 장흥군 CCTV통합 관제센터는 점유이탈 횡령범 관련 수사협조 요청을 받았다.

인상작의를 전해 들은 관제요원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도중에, 범인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관제요원은 근무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길가에서 근무 시간에 집중 모니터링을 했던 인상작의 범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범인은 바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관제요원은 "근무시간에 집중 모니터링을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얻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범인을 잡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도 사기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장흥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 받은 바가 있는 장흥군 CCTV통합 관제센터는 "앞으로도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 영암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본격화한다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날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영암읍 도시가스 도입 여건, 도시가스 사업 개요,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경제성) 검토, 기대효과 등이었다.

군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 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을 건의해 왔으나, 1차지제 1수급지점 원칙 및 경제성 논의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한국가스 공사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아닌 삼호읍(세한대학교 앞)에 기 매설된 목포도시가스(주)의 배관을 연장하여 영암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着手, 완료하였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 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을 건의해 왔으나, 1차지제 1수급지점 원칙 및 경제성 논의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으로 드론 전문교육원 유치 등을 통한 조선업에 편중되었던 영암군 산업의 다변화와 미래 성장 산업 유통성을 통한 과학 단지 조성, 가속화 및 기존 연료 대비 저렴한 난방비로 부족한 숙박시설 추가 유치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노경태 기자



연장하여 소재지권 공급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있다.

영암군은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목포도시가스(주)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으로 드론 전문교육원 유치 등을 통한 조선업에 편중되었던 영암군 산업의 다변화와 미래 성장 산업 유통성을 통한 과학 단지 조성, 가속화 및 기존 연료 대비 저렴한 난방비로 부족한 숙박시설 추가 유치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성군, 전년 대비 방문객 10.8% 증가했다

KT와 공동연구 통한 빅데이터 분석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관성 입증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렸던 작년 10월과 축제 종료 후인 11월에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져,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이 KT와 함께 추진한 '장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렸

#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청사진 나와

이용편의 주변환경과 조화 효율적 배치로 계획

혁신도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 초점 둘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인 다목적체육센터를 이용편의를 높이고 혁신도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둘 조성키로 했다.

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체육복지 를 책임지게 될 다목적체육센터를 진출입이 편리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신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다목적체육 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했으며,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 건을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는 길 건 축사무소의 응모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 동선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주변과의 조화로운 설계와 지반의 고저차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공간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당선작을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주민설명회와 다음 마당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설계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내년 12월까지 덕진구 중동 852번지 부지에 국비 35억원 등 총 113억원을 투입해 지

하1층, 지상2층, 건축연면적 3900㎡ (1179평) 규모로 조성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체육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공간에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함께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선다. 또 체력단련과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트램펄린 등이 가능한 체육공간과 다목적실도 구성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당선작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이용상의 편의성과 주변과의 조화성 등이 잘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화순군 “건축물 해체 신고해야”

화순군은 최근 건축물을 해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가 허가제와 감리제 도입으로 안전성이 강화됐다.

다만,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이면서 3개 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이윤상 기자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거리문화공연 ‘전격 연기’

코로나19감염 재확산 우려로 연기 결정  
안전을 위해 연기 공연 일정 추후 공지



불가피하게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을 기다리신 시민들과 관객, 예술인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일정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상면 기자

## 순천시, 순천부읍성 콘텐츠 발굴 성과공유회 개최

시민이 참여 직접 나서서  
순천부읍성 콘텐츠 만든다



순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순천부읍성 콘텐츠 발굴 시민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순천부읍성 콘텐츠 발굴을 위해 그동안 수렵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발굴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된 개관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지난 2월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52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발굴 시민단’은 순천부읍성이 위치한 원도심과 도시재생 지역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다방면의 콘텐츠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단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콘텐츠 발표와 순천부읍성의 역사성, 상징성을 담은 새로운 명칭을 고민하고 그동안의 활동 소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모아낸 시민단의 발굴 콘텐츠를 순천부읍성 운영·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 보성, 올상반기 보성사랑상품권 289억 원 풀린다

지급하는 중이다.

또한, 지역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분으로 발행해 판매했으며, 조기 품절돼 4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5월 2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군은 10% 특별 할인 판매할 상품권 25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보성사랑상품권의 10% 특별 할인 판매를 올해 7월 24일까지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특별 할인 기간에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시 할인율은 기존 5%에서 6%로 인상됐다.

보성/김정필 기자

## 영광군,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이며 오는 6월 1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안전관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영광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의 영광사랑카드를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선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송물량이 급감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분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기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노경태 기자

## 구례군, 코로나19 공적 방역물품 배부했다

읍·면사무소 및 터미널에 마스크 비치  
다중이용시설 비접촉식체온계 배부

구례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읍·면사무소, 대중교통 등에 공적 방역물품을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방문 접수를 대비하여 읍·면사무소에 마스크 2천장을 비치하였다. 대중교통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터미널에는 마스크 500개를 비치했다. 미처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방문자는 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구례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총 24만 장의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배부했다.

지난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 395개의 체온계를 확보하여 관내 경로당 277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18개소에 배부하는 등 공적 방역물품 배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며 활동과 접촉이 많아졌다”며 “군민들께서도 군의 대응에 협력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가 초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구례/강운철 기자



3월부터 발빠른 임대료 감면제 시행  
이용률 30% 증가, 농민들 절대 호응

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의 참여도 높다.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이후 지난 5월 15일까지 집계한 이용건수는 4259 건으로,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은 3월부터 발빠르게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을 겪는 지역농가들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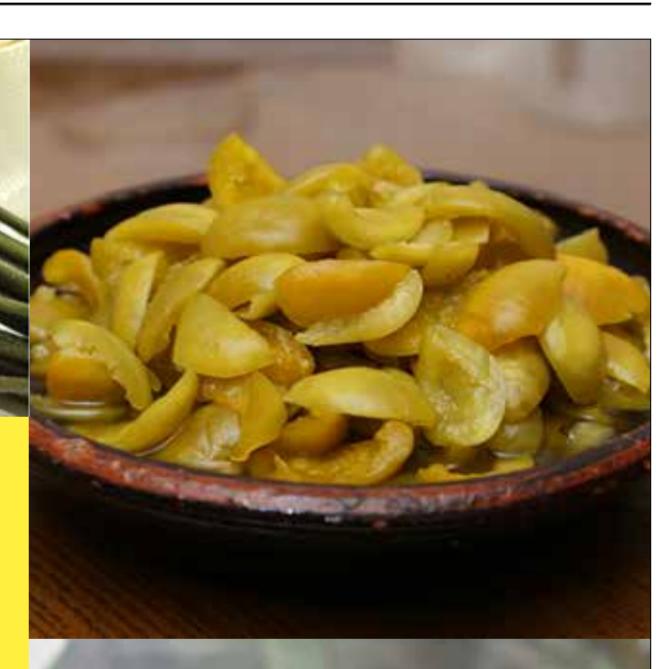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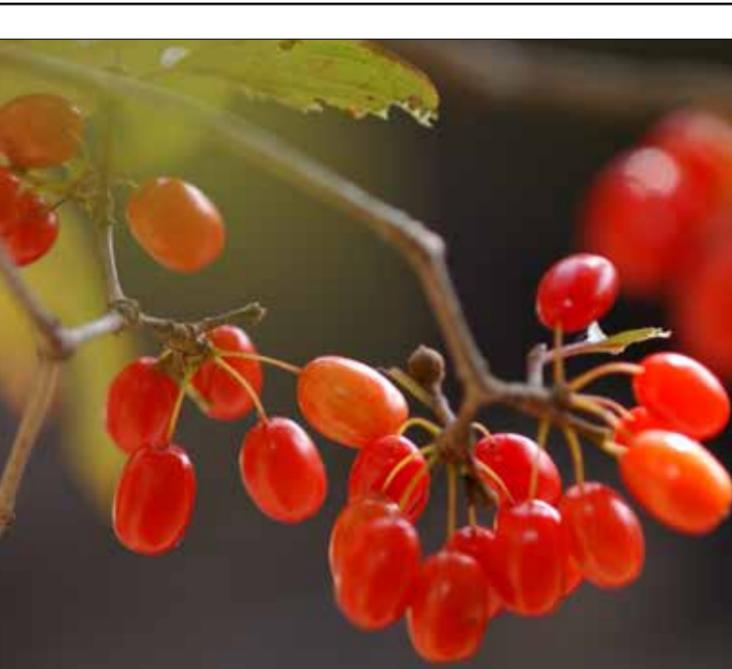
군은 총 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7종 76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건수는 2018년 9328건, 2019년 1만76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장성군은 작년까지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최우수사업소로 평가받았다.

장성/박태지 기자

영광군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인당 50만 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앞서 전라남도 지원 사업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영세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비를 통한 자체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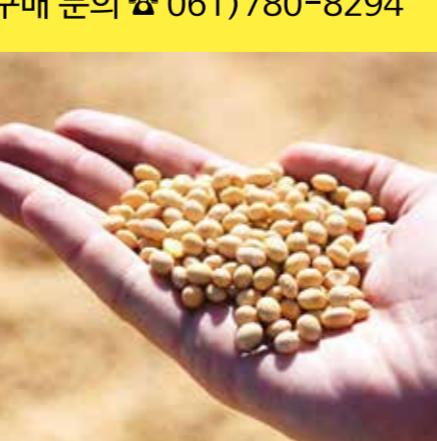
지원대상은 4월 말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영업장 소재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영광군에 있는 운수종사자



##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



# 경주시, '안녕한 한끼 드림' 지원사업



## 독거노인·취약계층 결식 예방농협중앙회 후원

이번달 8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5일간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관내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후원하고 이마트

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협업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안녕한 한끼! 도시락 지원' 사업을 이번달에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경주 노인급식소, 불국사성립무료급식소, 참사랑노인복지센터, 경주노인복지센터 등과 함께 이번달 8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5일간 총 2,490개의 도시락을 경주시의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게 된다.

한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자원봉사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방역활동 지원, 면마스크 만들기, 의료진 응원키트 만들기 등 민간 차원의 대응활동으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엽 센터장은 "이번 '안녕한 한끼! 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결식노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행렬!



장수현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 영주의 미래인 우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에 장학회에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주시전기공사협의회는 영주 지역 23개 전기공사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했다.

한편, 영주시전기공사협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해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7백만 원에 이른다.

영주/정승조 기자

## (주)파트에이, 여수시에 후원금 1,000만원 기탁



할을 했다"고 밝히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후원금을 기탁해 주신 (주)파트에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파트에이는 여수시 신기동 폐가박스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총 142세대 규모의 '여수 신기 휴스티지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다.

여수/김상면 기자

## 영천시·영천경찰서 협업 야광 지팡이 1,500개 전달

경북 영천시는 최근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공동 홍보를 위해 영천경찰서(서장 최준영) 김종호 경비교통과장 외 관계 공무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용품인 야광 반사지 부착 효도지팡이 600개를 영천경찰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기계 사고 다발지역 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야광 반사지 부착 효도지팡이 배부는 보행 용 지팡이에 반사테이프를 크게 붙여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안전용품인 효도지팡이 배부로 도로주행 농기계를 비롯한 보행 중 교통사고에 노출되거나 쉬운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 교육 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홍보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시 900개, 영천경찰서에서는 복지관 및 노인정 이용 관내 어르신들에게 600개를 배부할 계획이다.

그 밖에 본 사업으로 농기계 안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교재 제작 및 배부(1,000부),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또는 트랙터) 안전장치인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230여 개 부착 지원 등이 하반기에 추진 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북 농기계 사상자가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등 사고 대상이 대다수 노인인 경우가 많아, 본 사업을 계기로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배부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한반식 기자

## 영암군, 임산부들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남 영암군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대상 군으로 선정되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음·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6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산모나 임산부는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임신 확인서, 출생 신고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영양 플러스 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6천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하며 월 2회(6만원~12만원) 이용할 수 있다.



주문은 신청 시 가입한 인터넷 농협몰을 통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꾸러미 농산물이 공급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제공하고 유기농 1번지 우리 영암 친환경 농가의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임산부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경태 기자

## 시흥시, 유·초·중·고 학생·모바일 쿠폰 지원

경기 시흥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재료 생산자, 공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시흥시가 함께 마련했다.

학교급식경비 미집행 예산을 학생들에게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지원해 식재료 생산자인 농가와 공급업체의 활로를 찾을 뿐 아니라, 선별된 식재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6만 2,000여명이 대상이며, 학생 1인당 농협몰 모바일상품권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게 된다.

농협몰 이용 식재료 구매 모바일 쿠폰은 내달 1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이 학생들 가정과 급식 공급업체 모두에게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특히 시흥시에서 나는 헛토미를 비롯해 최상급의 농산·축산물을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시흥/길대성 기자

## 최형식 담양군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하는 지역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지역사회에 기부문화가 보편화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학 기자

## 영천시 간부공무원 기부행렬 동참



경북 영천시 간부공무원들은 22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생계가 어려워 몸이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적극에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예스병원은 6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영양주사나 긴급한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조정권 수지구청장은 "예스병원이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기로 해 감사하다"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예스병원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협약

홀로어르신 영양주사 수술 지원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전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죽전동 예스병원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영양주사나 긴급한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생계가 어려워 몸이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적극에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예스병원은 6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영양주사나 긴급한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조정권 수지구청장은 "예스병원이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기로 해 감사하다"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 화성시,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

내달 3일 무상교통 사업안 조례 공포  
제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경기 화성시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화성/김용범 기자

## 영암군 '코로나19 OUT!! 함께 이겨내요!!'

전남 영암군에 군민·단체·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선행이 계속되면서 서로 돋는 나눔이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영암군조사료경영체협의회(회장 정운태) 3백만원, 관내 농족협 10개소 및 직원일동 2천 9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여 코로나 19 위기극복에 동참하였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모인 성금은 1억 2천 8백만원에 이르며 이번에 기탁된 성금 3천여만 원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뜻깊고 소중한 마음이 지역내 취약가정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영석 기자

## 평택도시공사, 긴급재난지원금 착한 기부 동참

경기 평택도시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착한 기부 동참 캠페인을 벌이고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돋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김재수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간부급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김재수 사장은 "임직원들의 작은 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 용인시, 각계각층서 코로나19 극복 성금·품 기탁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성금 126만원을, 수지구 죽전동 올랜드아울렛 용인성남점이 141만원 상당의 백미 10kg짜리 55포를 기탁했다.

최영민 올랜드아울렛 용인성남점점장은 "개장 선물로 받은 백미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기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계각층서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 “아트뮤지엄 려” 공립미술관으로서의 행보 첫 시동!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상반기 기획전

‘아빠, 미술관 가자!'-미술과 과학, 그리고 형식 융합

전시기간 : 2020. 5. 22.(금) ~

2020. 6. 21.(일)

전시장소 :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연라동 758번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퍼블릭마켓

장 르 : 회화, 조각, 미디어 등 융합

성격의 현대미술작품

참여작가 : 김진우, 김지아나, 류호열, 엄익훈, 이길우 이상 5명

전시작가 및 작품 수 : 5명 작가 40점 내외

전시내용 : IT기술을 융합한 키네тика트,

미디어아트, 조명을 융합한 현대도자,

형식적 변화의 회화 작품 등 가족과

어린들을 위한 흥미로운 작품 전시

경기 여주시가 운영하는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에서 개관 후 첫 번째 기획전인 ‘아빠, 미술관 가자!'-미술과 과학, 그리고 형식의 융합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장르의 탈피와 영역의 확장, 융합과 통섭, 과학의 발전과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술계의 흐름을 미술관이 선정한 5명의 작가와 함께 다양한 소재와 표현으로 관람객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마련한 전시이다.

한국을 대표할만한 정상급 5명

작은 유닛으로 구성 된 작품의 실체와 그 실체가 빛을 통해 드러나는 그림자는 실체와 다른 아이러니의 극적 반전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 미디어와 회화, 조각의 융합 : 미디어와 키네тика트의 공간은 조각, 미디어, 사진, 동역학(動力學) 구조의 장르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작가 류호열의 공간이다. 작시나 원근, 반복되는 주크박스와 연속플레이 되는 미디어 안의 사물들은 몽환적 느낌과 즐거움으로 관객을 참여시키고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네 번째, 회화 속의 회화: 이미지 종첩의 공간은 산과 들의 풍경, 인물들의 모습을 향불을 이용하여 태우고 다른 이미지를 결합시켜 ‘소멸과 생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 이길우의 작품으로 이뤄진다.

동서양의 이미지, 전통과 현대의 이미지, 자연과 인공물의 이미지들이 겹쳐서 이중, 삼중의 임지를 한 화면에 담아낸다. 작가는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삶에 대한 감정을 전하고자 한다.

다섯 째, 회화와 도자의 융합 : 도자회화의 공간은 도자회화라는 독보적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지아나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구 구성의 근본 질료인 ‘흙’을 선택했다. 작가는 흙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때론 계산적이고 우연적인 과정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나’와 ‘사회’의 관계성, 시간이 만들어 내는 역사성에 대해 흙과 색, 그리고 기법적 융합의 시도를 통해 얻어진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다.

공간 속 다양하게 보여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일상 속의 예술적 사고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현대미술과 친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여주유기영 기자

담양군, 여행자 도시 ‘담빛길 미디어투어’



‘담빛길 미디어투어’ 2차 시범운영

정보통신(IT) 최첨단 기술의 융합

전남 담양군은 비대면 개별여행에 최적의 여행파트너인 ‘담빛길 미디어투어’를 오는 6월 15일까지 2차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24일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침이 전환됨에 따라 철저한 감염방지 매뉴얼을 준수해 비대면 개별관광이 특징인 ‘미디어투어’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미디어 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8권역 ‘남도 맛기행’의 하나로 광주, 목포, 나주, 담양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 관광지의 역사·인문자원과 정보통신(IT) 기술을 융합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담양은 원도심인 담양을 담빛길 구간을 2개 코스로 나눠 운영하며 지역 스토리와 수려한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시청하며 여유로

운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미디어 투어 체험자는 운영거점에서 골전도 이어폰과 태블릿 PC를 지급받고 안내받은 코스를 영상과 함께 투어하게 되는데 6월 15일까지(매주 월, 화, 제외)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mediatur.com)에서 사전예약 및 여행지 코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투어 거점(담양 메뚜기 까페 061-383-5539)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디어 투어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몰입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 작가, 영상 제작자, 문화기획자가 스토리를 발굴해 제작한 영상과 함께하는 도보여행 프로그램이다”며,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디어투어가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학 기자

## 경남도립미술관, 26일부터 무료관람 운영한다

일상에 지친 도민 위해 무료관람 서비스, 홈페이지 현장접수자에 한해 관람 가능



## 광명,장애인위한유튜브채널 개설

경기 광명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하여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집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영상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상 제작에는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참여했으며, 자신들의 전공 종목을 중심으로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균형 운동, 힙트레이닝,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광명시장애인체육회를 검색하면 볼 수 있으며, 12일 힙트레이닝, 14일 레크레이션 등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2주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강력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제작으로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광명시장애인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정채우 기자

## 경찰연합신문

제163호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포로 342, 3층(대치동, 덕유빌딩)

2020년 5월 13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2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속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보성몰**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http://mall.boseong.go.kr)

보성몰 ▾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greenboseong>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TtYuYKbSbh69PgCpyQ>

문기주  
경제칼럼-17회



▲문기주 회장

## ● 불과 30년의 짧은 역사 '지방분권'

분권(分權)이란 한자로는 나눌(分), 권세(權)으로 권한을 나눈다는 뜻이며, '지방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방자치 역사는 불과 30년의 짧은 역사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먼저 실시되고, 1995년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어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가 복원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조석이 되는 '지역분권'의 현실과 위상을 어떠한지? 이제 중간평가를 받을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행정수요가 다양한 현대사회에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은 주민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적·창의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환경, 복지 문제는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갈수록 커지는 지방재정 불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 해소는 여전히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외에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서는 지방정부 살림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지방분권'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보면,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정부는 수도권 69곳 가운데 27.5%(19곳)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은 전체 174곳 가운데 72.4%(126곳)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봐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2018년 53.4%, 2019년 51.4%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방세 등 세입 비중이 줄어 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의 척도인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는 2003년 84.9%에서 2018년 75.3%로 15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을 합한 것을 지방정부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의 비율을 말한다.

## ●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위상과 현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말해,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에 중점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과 현실은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다.

▼ '자치사무 분야'에서는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외에도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 '자치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세출비중은 4대 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비용이 훨씬 많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 '자치입법 분야'에서는 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민·조례제정권을 허용,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 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 없다.

▼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지방정부는 지방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지만,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자율권이 없다.

▼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발의(조례제정·개정·폐지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간이 까다로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 ●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 최초발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은 법률 제7060호로 2004년 1월 16일 최초 발효되었다.

이로부터 한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분권 행개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 '자치분권 5년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이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하며, 대통령과 시·도지사 사이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입법권과 지방정부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헌안은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으로 재적 의원 288명 가운데 114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은 자동폐기(투표불성립) 됐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좌초와

맞물려, 2018년 5월 21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식 발효되었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마지막 임법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돼 1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자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개정으로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된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지역 간 창의적 혁신경쟁의 필수요소이다.

과부화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와 재배분하여, 중앙정부는 전국적 과제를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 과제를 담당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21세기 한국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이다.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다. 자치분권의 선명한 청사진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꽂피는 지역, 새로운 삶이 넘치는 사회에 초점 맞추어진다.

이에 자치분권 6대 추진전략인 ▽ 주민주권 구현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사 설

##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제도여야 한다

한국의 K방역은 각 국가에서 방역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활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경험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행정과 민주적인 소통 구조 등에 힘입어 다른 선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기방역에 실패하여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하였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이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들며,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가 유럽 선진국의 공공의료체계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첨단 의료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야 함에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 결국, 공공성이 강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온 것은 초기방역 실패로 인하여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병상이 유럽보다 많다고 하지만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천 명당 중환자 병상을 따져보면 유럽이 훨씬 더 많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결국 미국·유럽 등 여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기방역에 실패하여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하였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유럽과 같은 대규모 발병에 대비하여 방역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때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과 같이 감염병 진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통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를 찾아 적극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립해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사법 불신 요인될 수 있는 한명숙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총리는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검찰과 법원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제와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동조했다.

한 전총리는 2007년 한신건설 대표였던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여권은 한씨가 감옥에서 쓴 비망록을 한 전총리 혐의가 조작됐다는 근거로 든다. 비망록에는 "검찰의 회유·협박에 의해 한 전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비망록은 이미 1~3심에 증거로 제출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한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막연한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몰아가는 건 법치 파괴 행위다. 억울하면 한 전총리 본인이 증거를 갖춰 정식으로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치면 사법 불신의 큰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여당 의원처럼 처신한 것도 불쌍사납다. 오죽하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의혹 제기에 맞서지 않고 맷장구를 치는 추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겠나. 법조계에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비망록을 제작한 만큼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말과 달리 여러 정황들은 한 전총리가 유죄임을 가리킨다. 한씨의 돈 1억원이 한 전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됐고, "돈가방은 한 전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는 한씨 측 경리 직원의 일관된 진술도 있다.

'친노·불도'로 꼽히는 한 전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라고 한다. 한 전총리 구명운동 배경에

부당한 수사와 재판 피해자라는 걸

부각시켜 특별사면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이 177석이라는 숫자의 힘

만 믿고 뇌물 사법을 무리하게 양심

수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 신과학 농업기술을 개발한 영농조합법인 (주)행복 손광석 회장

농촌 근대화의 선구자로 친환경 농업 기술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 영농조합법인(주)행복 손광석 회장

최근 농촌의 급격한 도시화로 귀농(歸農)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는 Well-being 산업은 창조와 융합을 접목한 농업의 근대화에 그 조짐이 맞춰져 있다.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도시환경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실도피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일종의 매너리즘 (Mannerism)에 빠져 자연스럽게 농촌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유로 귀농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귀농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한 가족의 비극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품목선택 등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 회장은 귀농 외에 외식과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장을 견지한다.

"프랜차이즈 등 외식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발변수를 대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충분한 준비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단순한 일념만으로는 절대 외식사업에 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유형들을 꼼꼼히 짚고 분석하여 내실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손 회장에 따르면, 바쁜 먹거리를 향한 소비자들의 열망은 과거와는 달리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고 있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음식 본연의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해주는 조미료에 대해서도 화학성분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등 친환경 바른 먹거리 인식이 고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의학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화학조미료가 몸의 부정적인 변화에 지대하다는 결과 때문이다.

손 회장은 과거 20여 년간 공직자로 생활해 왔다.

퇴직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기도 했고, 의류판매업 등 안 해본 사업이 없을 정도로 숱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패와 성공을 통해 사업의 기초를 연마하고 단단히 다져왔다.

특히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면서는 가맹점을 늘려 큰 성공을 경험하기도 했고, 이러한 긍정적, 도전적 정신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회고한다.

"사업을 할 때는 돈벌이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들로 인한 '정(情)'이 중요한 사업의 핵심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013년 첫 친환경 사업을 시작한 이래, 손 회장은 자신은 결코 사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신과학 영농사업이 소비자들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종의 사명감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농업 현실은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불공정 거래와 독점으로 인하여, 농가의 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딛고, 정의로운 수요와 공급의 통로를 고심한 끝에 손 회장은 친환경 신과학 영농기법으로 표고버섯과 아로니아 등을 재배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 근대화의 선구자로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현재 손 회장의 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김포와 고양시 일산서구 등지에 각각 표고버섯과 아로니아, 새싹채소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표고버섯과 아로니아를 기본 재료로, 8종의 천연농산물을 배합한 친환경 조미료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손 회장이 개발한 조미료는 표고버섯, 아로니아, 우엉, 멜็ด, 단호박 등 사람의 몸에 좋다는, 대표적인 천연농산물로 만든다.

손 회장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친환경 조미료는 현재 특허출원을 한 상태로 소비자들로부터 웰빙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 지역사회에 봉사와 혁신, 농가 소득증대에 키게 기여

손 회장의 귀농과 귀촌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대외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실상은 나름대로 오랜 역사성이 있다.

요즘처럼 귀농·귀촌이 사회적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손 회장은 이미 10년 후를 내다보며 귀농·귀촌을 비롯하여 농촌에 마을공동체운동과 유기농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한다.

손 회장의 예측은 정확했다. 손 회장은 귀농·귀촌의 흐름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첫 번째로는 '생태적인 가치와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귀농과 유기농업 생산자조합이 활성화되어 이상적인 농촌사회를 구현하게 되는 귀농, 그리고 도시문화에 씨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예측했다고 한다.

당연히 손 회장의 예측대로 최근 귀농·귀촌의 흐름은 크게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기준에 정착한 선배(?)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상적인 꿈만 갖고 귀농을 선택했던 초기의 선배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고, 농촌의 현실도 잘 몰랐기 때문에 농촌환경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을 겪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 손 회장은 귀농을 선택한 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때까지 멘토로서 농사뿐만 아니라 귀농생활 전반에 대한 것까지 세세하게 보살펴주고 쟁겨주는 역할을 자임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에서 봉사와 혁신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펼치는 그들이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날로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서 귀농·귀촌인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을과 지역의 일들을 도맡아 활동하면서, 마을에서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총무 등의 마을의 일꾼으로, 지역에서는 각종 단체의 간사나 지역활동가로서, 또한 자녀가 다니는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로서 여러 교육적 활동들을 이중삼중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이 대외적으로는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귀농·귀촌인 모임은 새내기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선도 농가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성적(情性的) 문제들과 애로사항들을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멘토로서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역할과 교류와 정보교환 등 동네 사랑방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정부서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이의집 단으로서 실력을 행사하려 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특히, 귀농·귀촌이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지자체를 보면 귀농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귀농희망지원센터를 민간영역에서 일정부분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초기에는 귀농희망지원센터 운영을 귀농인협의회 등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과 민간이 소통을 원활히 하여, 서로가 시너지를 얻고 상생해서 낙후된 지역공동체를 활활하게 넘치는 농촌의 아름다운 도시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시기에 귀농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손 회장은 통계를 보더라도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마을의 붕괴와 공동화를 초래하게 되어, 정부는 귀농에 관심을 두고 농촌환경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손 회장은 과거 20여 년간 공직자로 생활해 왔다.

공직에서 정년퇴직 후, 족발, 급식, 휴게소, 심지어는 의류사업까지 안 해본 사업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실패도 맛보았고, 그 실패를 경험으로 사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도 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면서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악성 브로커를 비롯한 이의집단에 의해 큰 손해를 봐야만 했었던 아픈 기억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패를 거울로 삼아 자신만의 소신과 투철한 경영철학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성공한 사업가로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룬다.

##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정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인

매사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적 정신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그는 "사업을 할 때, 돈벌이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들로 인한 '정(情)'이 중요한 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손 회장은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이윤추구나 사익보다



는 인간적인 정(情)을 강조하는 대인(大人)의 모습을 늘 웃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손 회장의 신념과 경영철학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자신이 판매한 제품을 섭취하고 즐기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영농기법을 통해 농가(農家)들이 더욱 편하고 더욱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돋는 게 돈보다 중요한 그의 사업 목표라고 했다.

손 회장의 경영철학을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정(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인으로 특히 그는 '농업 유통구조의 개혁'을 통한 '농업인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신과학 영농기법을 통해 최상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 가공해서 '잘 사는 농가'의 표본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포부이자 자신이 지향하는 사업의 목표라고 강조한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편의점 사업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본사의 어이없는 갑질 횡포에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한다.

손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대기업의 횡포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GS25 편의점 운영 본사인 GS리테일 측의 보복성 알박기, 근거리 출점, 강제 발주, 불공정 거래 등의 횡포로 인해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다.

물론 손 회장의 점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편의점 업주들이 당하고 있는 본사 대기업의 횡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한 GS25 편의점 업주가 누적적자에 견디다 못해, GS25 편의점을 내리고 다른 편의점으로 바꾸게 되면, GS25 본사는 직영으로 편의점을 더 세운다는 것이다.

당연히 보복성으로 양쪽에 편의점을 두어서 상호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대기업의 횡포가 그 첫 번째로 근거리 출점은 한 지역의 GS25 편의점이 본사가 원하는 수준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근처에 같은 GS25 편의점을 더 두어서 그 지역권의 GS25 편의점 전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 손 회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타파하고 편의점 가맹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는 발 벗고 나설 것이라 했다.

손 회장은 대기업의 강제 발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제 발주는 본사에서 강제적으로 각 지점에 물건을 집어 넣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발주는 가맹점 업주들이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편의점 본사 측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상식을 벗어난 발주를 한다고 한다.

불공정 거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업주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본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35%, 점포 유지비와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모순에 대하여 추후 기획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한편 손 회장은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웰빙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에 혁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한 공적이 인정되어 해마다 정부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에 혁신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손 회장의 활동에 앞으로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뤄내고  
20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나라  
모든 하늘길이 막혔어도,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나라  
그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따뜻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국민의 모습이  
70억 세계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국민 곁에  
KB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KB 금융그룹